

대덕 벤처, 최대 진출 선호국은 ‘中國’

대 덕밸리 벤처기업들이 향후 해외시장 진출시 중국으로 가장 많이 진출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밸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대덕밸리 기업들의 아시아시장 진출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2개 기업중 31.5%(62개)가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다. 중국 다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는 일본이 차지했다.

21.3%(42개)의 기업들이 일본진출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뒤를 이어 싱가포르(8.6%)과 대만(8.1%), 홍콩(7.1%), 말레이시아(6.1%), 베트남(5.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업종별 진출선호도를 보면 정보통신(IT) 업체들과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중국보다 일본 진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밸리 IT기업들의 46.8%(29개)가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이어 33.9%(21개)의 기업들이 거대한 중국시장에 발을 내딛길 희망했다. 나머지는 홍콩(4.8%), 말레이시아(4.8%), 베트남(3.2%), 싱가포르(3.2%) 순이다.

대덕밸리 바이오 벤처기업들 역시 55.6%(10개)의 기업이 진출하고 싶은 국가로 일본을 꼽았으며, 27.8%(5개)의 기업들이 중국진출을 선호했다.

반면, 기계제조 및 나노환경 전문 벤처기업들은 일본보다 중국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야 75%의 기업들이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에 진출하길 원했으며 25%만이 일본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은 해외시장을 돌파할 때 '기술이전'(23.5%)과 '문화차이'(28.5%)로 인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제품 신기술

“이젠 전화로
메신저 받는다”



메신저와 전화기능을 통합한 업무용 메신저가 출시됐다.

대덕밸리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지란지교소프트(대표 오치영)는 지능형 서비스 개발업체인 헤리티(대표 한미숙)와 공동으로 자사의 메신저 솔루션 콜메신저에 전화방 연동 서비스를 통합한 '콜 메신저 4.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출시된 콜메신저 4.0은 텍스트 메시지를 음성으로 변환해 부재중이나 오프라인 상황에 상관없이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 콜 기능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음성녹음을 통한 공지 및 메시지가 가능하며 1:1이나 1:다수 전화걸기도 일일이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클릭콜을 통해 간편하게 걸 수 있다.

사용자는 KT 전화망을 그대로 이용하기에 추가 비용이 없고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란지교소프트는 연말까지 메신저 콜을 개통하면 고객예전 콜 메신저4.0을 50%의 할인 가격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콜메신저는 국내 최초의 업무용 메신저로 현재 1700여 개 학교와 200여 개 기업이 공급돼 있다.